

기호학에서 범주화의 문제

김 성 도

1. 들어가는 말

범주화란 개념은 언어학자와 기호학자들에 의해서 비교적 빈번하게 사용되어왔다. 먼저, 언어학에서 자연 언어를 통한 세계의 범주화는 사피어-워프의 가설로 나타난다(Whorf, 1956). 이 가설에 따르면, 우리의 정신 세계는 우리가 말하는 언어의 구조들에 의해서 규정되며, 그 구조들은 현실을 자의적으로 재단하고 모국어 화자의 경험의 범주화를 부분적으로 지배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언어 상대주의의 원칙은 자연적·보편적 논리의 부정을 함의한다. 이것은 곧 우리의 정신적 범주들을 형성하는 것은 언어이며, 그 반대의 경우는 성립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서, 이 같은 입장을 마르티네는 『공시언어학』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표명한 바 있다: “현대 언어학의 근본적인 경향 중의 하나는 비언어적 현실들에 대한 언어적 구조들의 자율성이다. 오늘날의 언어학자들은 언어 구조와 비언어적 구조들의 상호 종속성을 인정하려는 유혹에 결코 빠지는 법이 없다”(Martinet, 1965: 184). 이것은 곧 두 가지 문제를 내포한다. 하나는 언어의 구조는 언어 외적인 현실들에 직접적으로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둘째는, 우리가 말하는 언어의 범주는 우리가 세계를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내재주의적 구조언어학(기호학)의 근본적인 원칙이다. 이 원칙의 기본 내용은, 제언어는 감각적 현실을 자의적으로 재단하며, 순전히 내적인 관계들의 직물망 가운데서, 그 같은 현실을 시차적·대립적으로 정의되는 하나의 기호 체계로 전환한다는 주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곧 흄볼트 언어 사상의 현대적 재평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테제를 철학적으로 가장 명료하게 표명한 사람은 아마 카시러일 것이다. 그에 따르면 언어는, 미리 주어지며 분명하게 한정된 개별적 물체들에다, 순전히 외적이며 자의적인 기호들을 덧붙이기 위한 객관적 지각의 세계에 속하지 않는다. 오히려 언어는 대상들의 세계를 정복하기 위한 가장 소중한 도구이다. “언어의 역할은 결코 미리 존재하는 생각들을 전달하는 것으로 국한되지 않으며, 사고의 형성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매개자이다. [……] 언어는 결코 관념에 선행하여 존재하지 않으며, 관념은 언어 속에서 또 언어를 통해서 형성된다. 관념은 말하면서 오는 것이다”(Cassirer, 1933: 66). 기호의 본질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지를 펼치고 있다. “사물의 논리, 즉 하나의 과학의 구축이 기초하는 근본적인 내용들과 관계들의 논리는 기호들의 논리와 분리될 수 없다. 왜냐하면 기호는 순전히 우연으로 사고에 부여되는 결봉투가 아니라 사고의 필연적이며 본질적인 기관이기 때문이다”(Cassirer, 1972: 27).

다른 한편, 벤베니스트는 하나의 자연 언어의 세계에 대한 적용을 지칭하기 위해 세계의 범주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이때 세계란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지각되는 바를 말한다. 그는 저 유명한 논문 「사고 범주와 언어 범주」에서, 이 양자의 상호 연대성과 필연성을 주장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사고는 언어로부터가 아니라 개별적인 언어 구조들로부터 독립적이게 된다. 중국인의 사고는 도(道)나 ‘음’과 ‘양’ 만큼 특수한 범주들을 생각해낼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유물론적 변증법이나 양자역학의 개념들을 동화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어떤 유형의 언어도 그 자체에 의해서 그리고 단독으로 정신의 활동을 장려할 수도, 막을 수도 없다. 사고의 약동은 언어의 특수한 성질보다는 인간의 역량, 문화의 일반적 조

건들, 사회의 조직에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사고의 가능성은 언어 활동 능력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언어가 의미를 부여받은 구조이며, 사고한다는 것은 언어의 기호들을 조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Benveniste, 1966(『일반 언어학의 제문제』 황경자 옮김, 민음사, 1992: 111))

1980년대초부터 언어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각된 인지언어학에서 범주화의 문제는 중추적인 문제로 부각되었다. 인지언어학의 선두 주자인 레이코프는 범주화의 능력을 지각·행동·발화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간주한 바 있다(Lakoff, 1987: 5). 앞서 언급한 문화적·상대주의적 가설에 맞서서, 인지언어학 전문가들은 정보 처리의 주체와 그것의 물리적 환경 사이의 상호 작용이라는 보편적 성격을 단언한다.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범주화는 언어적 분류와는 독립한다. 여기서 문제되는 의미는 언어적 의미가 아니라, 결국 세계에서 나온 의미, 즉 현상학적 의미 차원에 속한다. 이들 심리학자들은 저 유명한 사피어-워프의 가설인 언어적 상대주의에 정면으로 맞서, 인지적 보편주의의 타당성을 옹호하는 것이다.

범주화란 우리가 세계에 대해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방식들을 표상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이다(Lakoff, 1987: xi). 상이한 것들을 전체로 배열하는 이 같은 정신적 조작은 인간의 사고·지각·발화·행동 등을 비롯한 인간의 모든 활동 영역에 걸쳐 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떤 것의 부류로 볼 때마다 우리는 범주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예를 들어 밥을 먹는 것—그것은 활동의 한 가지 범주이다. 이렇듯, 범주화와 범주들은 대부분의 경우 무의식적으로 진행되지만, 우리가 경험을 조직하는 데 있어 근본적이다. 범주화가 없다면, 개별적 실재들에 머물러 개념적 구조화로 넘어서 수 없으며, “지각된 환경은 카오스를 이룰 것이며 매번 모든 것은 새로울 것이다”(E. Cauzinille-Marmèche et al., 1988 참조). 정리해서 말한다면, 범주화는 모든 고등 인지 동물의 근본이 되는 것으로, 다양성 속에서 유사성을 파악하는 능력으로서, 식별과 종합의 두 가지 원리로 구성되어 있는 생물학적 제약이다(Taylor, 1989/1995: vii).

이제 논의의 방향을 선회하여 범주화를 기호학의 장으로 도입시켜보자. 기호학의 핵심적 문제 중의 하나는 기호 개념과 기호의 형성을 담당하는 주체 개념의 친화성이다. 기호를 이루는 양면적 구조—그것이 기표와 기의이건 아니면 기호와 지시체인건 여기서는 상관이 없다—가 성립하려면 기호의 구성 단위와는 존재론적으로 다른 하나의 주체 곧 정신이 필요함은 자명하다. 하지만 기호학사에서—특히 구조기호학의 맥락에서—이 같은 기호와 주체의 개념 사이의 친화성이 무시된 나머지 극단적인 이원주의로 빠지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이것은 곧 객체와 주체를 환원 불가능한 현실계로 보고 그 양자의 상호 관련성을 기호학의 연구 대상에서 몰아내는 사태로 나갔다. 이것은 곧 사물과 주체가 없는 체계의 개념을 증진시킨 유명론적 기호학자들의 한계이기도 하다. 그런데 코케의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이 같은 내재주의 언어학은 구조언어학사의 흐름에서 반조가리일 뿐이며, 브뤼달, 야콥슨, 벤베니스트로 이어지는 역동적 구조주의의 흐름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Coquet, 1991). 예컨대, 벤베니스트의 발화 작용의 언어학은 발화에 있어서의 주체와 세계 속에서의 담화의 삽입을 강조하였다. “담화란 말하는 인간이 담당하는 랑그이다”(Benveniste, 1966: 266). 코케의 보고에 의하면, 벤베니스트가 언어학에서 열어놓은 현상학적 원근법에서 제일의 영역은 서술화 *prédication*의 영역이다. 서술화를 통해서 언주는 이 세계 속에서의 자신의 착생 *insertion*을 발현한다.

물론 이 글은 코케가 상기시킨 구조언어학과 현상학과의 역사적·인식론적 관계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 삼지 않았다(Coquet, 1992). 단지, 앞에서 언급한 기호와 주체의 이원성을 극복하기 위한 제안으로서, 그 대안의 문제들로 기호 형성에 필수불가결한 범주화의 문제를 논의의 중심에 놓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범주화에 대해서 가장 세밀한 언급과 이론화를 마련했다고 판단되는 두명의 기호학자, 엘름슬레우와 퍼스의 텍스트를 인식론적 관점에서 분석하려 했다. 이 글은 기존의 해석과 이론을 극복하는 새로운 견해나 결론을 담고 있지 않으며, 다만 범주화의 관점에서 미해결된 문제

들을 다시 집결시킴으로써, 범주론의 새로운 논의의 틀을 짜보자는 데 목표를 두었다.

2. 엘름슬레우와 범주화의 문제

I. 초기 저작에서 나타나는 범주 문제

엘름슬레우 이론에서 범주의 문제는 중심부에 놓인다. 그에 따르면 언어 이론의 귀결점은 범주들의 과학을 정립하는 일이다. 또한 엘름슬레우에 있어서 범주의 중요성은 범주가 포착하는 전적으로 기능적인 내용에 기인한다. 『언어』에서 범주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우리는 범주를 연쇄체의 규정된 자리에 도입될 수 있는 크기들의 총합으로서 정의했다. 예컨대 우리는 모음과 자음이 범주들임을 보여주었다” “범주는 계열체로서 그 요소들은 연쇄체의 다른 자리가 아닌 특정 자리에서만 도입될 수 있다.” (Hjelmslev, 1966: 128, 173). 다시 말해 범주는 곧 연쇄체 속에 위치한 하나의 특이성이다. 관계와 상관 관계가 서로 결속하고 통합체적인 것과 계열체적인 것이 서로 상호 교차하는 것은 바로 범주에서이다: “범주와 관계—규정, 상호 종속 그리고 성좌는 계열체적인 것(교체 가능한 구성항들 사이의 함수들의 망)뿐만 아니라 통합체적인 것(공존하는 구성항들 사이의 함수들의 망)에서도 관찰된다. [……] 관계 또는 통합체적 함수와 상관 관계 또는 계열체적 함수는 서로 함수 관계에 있다. 언어 체계는 상관 관계들의 총합과, 상관 관계들을 통해 성립된 범주들에 의해서 설정되며, 범주들은 다시 통합체적으로 규정된다”(Hjelmslev, 1966: 128)

엘름슬레우의 범주론을 논의하는 공간에서 그의 기념비적인 초기 저서인 『격의 범주』(1933)는 매우 독특한 범주론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이 저서에서 그는 “문법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대립은 긍정적 관념과 부정적 관념의 대립이 아니라 단순 관념과 복합 관념의 대립”임을 강조한다. 모든 차원은 “세 개의 대립된 칸”으로 분석되며 이때 긍정적 칸과

부정적 칸이 양극단의 칸이라면 중립적 부분을 차지하는 중간적 칸이 있다. 물론 엘름슬레우는 긍정향과 부정향의 이분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대립은 다른 많은 대립들 가운데 실현 가능한 한 가능성 일 뿐임을 지적한다. 아울러 그는 기호학적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변별적 대립보다 참여적 대립을 더욱더 관여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격들의 언어학적 체계를 유도하는 구조적 원칙은 정의상 선논리적이다. 격들의 의미 작용과 같은 두 개의 대상들 사이의 관계는 논리-수리적 대립들의 체계에 의해서 또는 참여적 대립들의 체계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다. 그런데 언어의 사실들을 포괄하고 그것들을 직접적인 노선을 통해서 기술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두번째 종류의 체계일 뿐이다. 그러나 형식논리학의 체계와 언어의 체계를 하위 논리적 체계라 부를 수 있는 공통적 원칙으로 귀결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하위 논리적 체계는 논리적 체계와 동시에 선논리적 체계의 기초에 존재한다”(Hjelmslev, 1972: 127)

여기서 말하는 하위 논리적 수준은 바로 격체계를 위치시키는 깊이的水準을 말한다. 초기 엘름슬레우는 격문법에서 제시되는 또 다른 중요한 입장은 철저한 반아콕손적 견해로서 일체의 이분법적 원칙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¹⁾ 기호를 기호학의 적절한 개념으로 보는 것을 부정하는 입장과 더불어 엘름슬레우는 이원주의는 하나의 부수물이며 가능성일 뿐, 결코 필연성이 아님을 강조한다. 그는 「형태 음운론적 상관 관계」(1933)라는 논문에서 체계는 반드시 두 개의 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직시하며, 언어학적 관계를 오직 배타적 또는 결여적 향들의 대립으로 정의하는 아콕손의 이원주의를 비판한다. 인용문에서 제시된 하위 논리적 시각은 이 같은 이원주의에 대한 비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긍정향과 부정향으로 이루어진 체계에 관심을 가졌으며 그 결과 브린달이 생각했던 것처럼

1) 엘름슬레우와 아콕손의 이원주의와 하위 논리적 체계의 대립에 대한 상세한 해설은 Zilberberg (1985 = 1989에 재수록)의 논문 “Connaissance de Hjelmslev. Prague ou Copenhagen?,” *Il Prtagora* XXV, 7-8, 1985, pp. 127~69를 참조할 것.

럼, 하나의 중립항 또는 복합항은 하나의 차원이나 문법적 축에서 매개항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견해가 피력된다. 다른 말로 하면 제대립들은 차원적이며 구성항들은 고려되는 차원에 따라 특수한 속성들을 갖는다. 이 원론적 시각은 범주들의 다차원성을 적절하게 파악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인식론적 측면에서 설명해보자면 이분법적 대립의 구성항들은 결코 긴장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며 오직 다차원에 자리잡은 위치들만이 서로에 대해서 긴장 상태에 놓인다. 대립의 구성항들이 배타적인 반면, 다차원적 범주화의 개념만이 연속성과 점증성을 참작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파레트 교수는 이 점에서 초기 엘름슬레우가 대수학적 형식주의 보다는 오히려 현상학자에 가깝다는 설명을 달아놓고 있다(Parret, 1995: 11). 이원주의와 범주의 차원적 개념은 곧 의미 작용의 하위 논리적 체계성이라는 개념을 잉태시키게 된다. 자연 언어에 대한 이 같은 ‘자연적 논리’는 정신의 구조를 반영하며, 동시대의 인류학자 레비 부뤼엘의 ‘원초적 정신성’의 개념과 동일선상에서 파악될 수 있다. 엘름슬레우는 그의 박사 학위 논문인 「일반 문법의 원칙들」(1928)에서 원초적 정신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달고 있다: “우리의 정신성 곁에 레비 부뤼엘이 원초적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정신성이 존재한다. 이 같은 원초적 정신성은 선논리적이며 신비적이고 우리의 정신성과는 다르게 방향이 정해졌으며 참여 법칙에 의해서 지배되거나와 이 같은 참여 법칙은 모순 논리와는 무관하다”(Hjelmslev, 1928: 258). 엘름슬레우는 원초적 정신성의 근본적인 특징은 곧 인간은 논리적 법칙들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즉 인간은 동일성과 인과율을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그는 동일성과 인과율은 대부분의 경우 언어학적 범주들에 상응하지 않는 논리적 범주들이라는 점을 주목한다. 다시 말해 언어학적 범주들은 선논리적인 것과 논리적인 것이 공존하는 인간 정신을 반영하기 때문에 동일성과 인과율의 기준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는다. 오히려 언어학적 범주들은 참여 법칙에 의해서 지배된다. 『격의 범주』에서 엘름슬레우는 선논리와 논리적 체계를 회피하여 하위 논리적 체계화를 선호하는데 이때 하위 논리적인 것은 바로 참여 법칙에 의

해서 제약을 받는다. 그에 따르면 하위 논리적인 것은 논리적 체계와 동시에 선논리적 체계의 기초에 놓여 있다. 하위 논리적인 것은 이원적 대립 체계가 아닌 참여적 대립들의 체계를 형성한다. 이 같은 참여 법칙은 논리 주의적이며 이원적 굴레로부터 벗어나 모든 체계에 대해서 그것의 구성항들의 대칭이 아닌 근본적인 비대칭을 설정하려는 필요성을 표현한다. 부연하자면 언어 체계는 긍정항들과 부정항들 사이의 대립들의 논리-수리적 체계로서 구성되지 않는다: “언어 체계는 논리적 체계의 축에서 다르게 방향을 취할 수 있으며, 그 같은 체계가 축약시키는 대립들은 참여 법칙에 종속된다. 즉 A와 non-A의 대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론 A와 다른 한편으론 A+non-A 사이의 대립들만이 존재한다”(Hjelmslev, 1928: 102).

더 나중에 가서 엘름슬레우는 하위 논리적 체계를 실현 가능한 것들의 체계라고 지칭하는데 이것은 배제 원칙에 의해서 지배되는 논리-수리적 체계 뿐만 아니라 선논리적 체계를 가능케 한다. 또한 선논리적 체계는 a vs $a+b+c$ 유형의 참여적 대립을 받아들인다.

또한 범주들 일반과 격의 범주들의 하위 논리적 체계화를 지배하는 참여 법칙은 곧 기초학적 연속성과 점증성을 참작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 요컨대 엘름슬레우는 다음과 같은 변형들에 기초하여 체계들의 역동성을 예측한다. “규칙 8: 모든 상반적 배제는 모순적 참여로 변형될 수 있으며, 모든 모순적 참여는 상반적 배제로 변형될 수 있다. [……] 규칙 9: 모든 모순적 배제는 상반적 참여로 변형될 수 있으며 모든 상반적 참여는 모순적 배제로 변형될 수 있다”(Hjelmslev, 1985: 104). 이 같은 두 가지 원칙의 조합은 두 가지 종류의 구성항들을 설정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 의미 작용을 집중시키는 집중적 항과 의미 작용을 널리 퍼뜨리는 확장적 항이 그것이다. 체계의 구조를 지배하는 원칙은 이렇듯 확장적 차원과 집중적 차원으로 이루어진다. 확장적 항은 어떤 것이 부재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구역의 모든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로 특징지어진다. 엘름슬레우에 있어서 비존재란 있을 수 없다. 오직 존재의 상이한 방

식과 체제가 있을 뿐이다.

II. 범주화와 기호학적 함수

이른바 엘름슬레우의 언어 이론이라고 불리는 언리학에서, 기호의 토대는 다양한 학문 분야들의 경계선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엘름슬레우에 있어서 기호는 다음과 같이 잘 알려진 표현의 형식과 내용의 형식 사이에서 발생하는 기호 함수로부터 구성된다.

표현	내용
형식	←기호-함수→
실질	

엘름슬레우는 기호학을 표현면과 내용면이라는 두 개의 함수소 *fonctifs*로 응축된 하나의 함수 관계로 간주할 것을 제안한다. 그는 두 면을 형식적 실재들로 분석될 수 있는 체계들로 구분한다. 두 면의 형식은 비시차화된 연속체를 변별적 단위들로 조직화함으로써 얻어진다. 이 연속체는 질료라는 무정형의 집합 또는 기호화되지 않은 우주로 규정될 수 있다. 표현의 형식은, 소리, 색채, 공간적 관계, 촉감, 후각 등의 연속체의 일정 부분을, 대립을 통해 구조화된 유형들의 체계를 구성하면서 변별적으로 만든다. 같은 방식으로, 내용의 형식은 표현될 수 있는 것의 연속체의 일정 부분을, 상호적 대립들을 통해 구조화된 유형들의 체계를 구성함으로써, 구조화한다. 이 경우 연속체는 관념성의 총체이다. 구조언어학의 첨단이었던 음운론의 발견에 힘입어, 표현 체계를 고안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그러나 내용의 체계를 구성하는 일은 그보다 훨씬 더 난해한 작업이다. 엘름슬레우의 도식에서 연속체 또는 무정형의 질료는 별다른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다. 에코가 지적했듯이, 이런 식으로 연속체를 보는 방식은 결국

엄청난 형이상학적 문제를 제기한다(Eco, 1988: 80). 이것은 곧 지각적 기의 곧 현상학적 기의와 경험과 기의를 비롯해, 인지적 내용과 의미론적 내용 사이의 동일성과 차이라는 첨예한 문제들을 제기한다. 이 문제는 또한 역동적 대상체와 직접적 대상체 사이의 관계에 대한 퍼스의 문제이기도 하다. 어쨌든, 엘름슬레우가 말하는 연속체는 오직 내용이 부여하는 조직들을 통해서만 인지될 수 있는 일종의 물자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엘름슬레우 자신이 연속체를 이미 의미를 갖춘 그 어떤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그가 표현의 연속체와 내용의 연속체를 모두 *mening*, 즉 *sens*로 명명했다는 것으로 암시될 수 있다. 여기서 엘름슬레우의 언급은 쉽게 양립되기 어려운 두 가지 방향을 내포한다. 한곳에서, 그는 이 의미가 무정형의 질료라고 단정하는 반면(같은 책: 69), 다른 곳에서는 질료는 형성되기 이전에 과학적 존재를 갖지 못하지만, 여전히 형성의 보편적 원칙을 표상한다는 것이다(같은 책: 98). 내용의 최적의 조직이 무엇이라는 물음은 곧 지각과 범주화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물음을 함의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내용을 기의로서 구성하는 기호학적 문제는 지각과 지식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 바로 지각과 지식이 우리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추동력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기호학적 기의와 지각적 기의, 그리고 현상학적 기의는 숙명적인 동의어가 될 수밖에 없으며, 이 삼자의 관계는 현대 기호학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된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에 발표된 풍타니의 논문의 서두는 십분 이해가 간다.

“오늘날 기호학의 과제 중의 하나는 바로 지각적 체험을 있는 그대로 분절하는 일이다. 언어학 전통의 탈신체화된 기호, 엘름슬레우의 체계와 쉐마 역시 몸으로부터 분리된 것이지만, 그것들은 다시 주체의 고유한 몸과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바로 몸이 그 동질성의 감각적 조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적 지각(기의의 요인)과 외재적 지각(기표의 요인)은 오직 지각의 통일성에 의해서 특징지어지는 감각적 체험성으로 그것들을 귀결

시키지 않을 때만 차이가 난다. 그렇게 되면, 표현면과 내용면 사이의 상호 전제 조건은 세미오시스를 정의하는 관계로서 고려되며, 자기 수용적 지각에 의해서 제지각의 통합의 효과가 된다”(Fontanille, 1995: a4~5).

언어학에서 신체가 상대적으로 무시된 것은, 만약 랑그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문장의 형식적 규칙들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면 별로 문제 될 것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담화와 발화 작용과 관련된다면, 상황은 전혀 다르다. 감각적·정념적 차원이 당연히 분석의 영역에 들어오기 때문이다(Greimas et Fontanille, 1991 참조).

만약 하나의 기호학적 함수가 쌍방적 호소를 통해서 표현면과 내용면을 연결짓는 것이라면, 하나의 기호로 해석되는 모든 현상 속에서, 이 두 면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엘름슬레우는 두 면의 분절이 오직 함수적이라고 보았다. 하나의 기호의 표현면과 내용면에서 발생하는 형식적 범주화는 함수적 단위를 형성하지 않는다. 짧게 말해 범주화와 기호학적 함수는 일치하지 않는다. 만약 범주화와 함수가 일치한다면, 사람들은 투명한 세계를 가질 것이며, 인간 세계나 물리 세계의 부여 방식은 정신적 또는 물질적인 사물에 직접적인 함수적 접근을 허락할 것이다. 제현상들의 공범주화를 확보하는 보편적 함수는 없다.

주지하다시피, 엘름슬레우는 한 가지 기술적인 파급 효과를 도출한다. 표현과 내용의 형식은 형상소들로 분절되며, 그 형상소들의 조합만이 함수성을 얻는다. 이 형상소들은 양면을 분리하고, 그 조합의 함수는 양면을 기호학적 면으로 구성한다. 각각의 형상소는 범주화의 결과이다. 이 결과들은 각각의 면에서 하나의 자율적 조직화를 형성한다. 두 개의 조직화가 기호학적 함수에 의해서 연계된다. 여기서 기호학적 함수는 보편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특정 면에서 특정 형상소들의 조합만을 연계시키기 때문이다. 이 연계성들은 기호학의 구조를 성립한다. 이 구조란 개념은 인간 소통이 제공하는 제기호학들의 우발성과 역사성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열려져 있다. 엘름슬레우는 오직 언어만이 진정으로 형상소들의 목록을 분리하며, 제범주화들의 분리와 함수성의 한계화가 언어학

의 대상을 성립할 뿐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더 복잡하다. 예컨대, 시각기호학에서 도상성은 일반화된 함수성에 위배된다. 표현 기저층의 미세성에 따라, 함수적이지 않은 형식적 속성들도 나온다.

성충화되지 않은 채 표명된 기호는 두 개의 범주화와 하나의 연계성의 기호학적 함수에 기초한다. 이어서 표현의 형식과 내용의 형식이 나온다. 이 두 개의 형식의 독립성은 범주화들이 자연적으로 구분되는 두 개의 실체에 적용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즉 지각과 사고가 그것이다. 제범주화들을 책임지는 자연적 요인들도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제3의 근본적인 요인인 기호학적 함수는 하나의 신비로서 나타나는데, 두 개의 실질이 복합적인 형식들을 결속하고 고정할 정도까지 서로를 유인한다. 이 신비를 밝히는 첫번째 단계는 하나의 실체 속에서 하나의 형식이 발현되고 안정화되는 과정, 즉 형태 발생 *morphogenèse*이 두 면에서 상이한 조건에서 실현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세 개의 인지적 요인들이 추출된다.

표현면에서 작동하며 표현의 형식을 담당하는 범주화 C1으로서, 그 실질은 지각에 속한다. 내용면에서 작동하며 내용의 형식은 물론 개념적 조직화 일반을 생성하는 범주화 C2를 손꼽을 수 있다. 세번째 요인은 기호학적 함수 FS로서, 이것을 통해 주체가 세계를 구성하고 부여하는 것은 상징화 작업과 하나가 된다.

III. 범주화와 형상소

엘름슬레우의 기호 이론에서 유일한 자율적 대상은 형식이며, 대수학적 차원의 형식화가 이루어진다. 형식은 상호 관련된 단위들로 구성되며, 모두 세 가지의 가능한 형식들을 취하는 두 개의 단위들 사이의 상호 관련성으로 규정된다. 상호 종속성, 일방적 종속성, 비종속성이 그것이다. 실질은 그것이 내용의 실질이건 형식의 실질이건, 변화무쌍하며 형식에 종속된다. 즉 표현의 동일한 형식적 대수학 *algebra*은 다양한 실질들을 의미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엘름슬레우에 따르면, 실질 그 자체는 현실적으

로 아무것도 아닌, 즉 무로 인식된다(물론, 나중에 가서 그는 내용의 실질을 다루는 분야로서 사회인류학을 제시한다). 이것을 풀어 말하면, 실질은 형식의 도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오직 형식을 통해서만 그 존재가 인지될 수 있다는 논지이다. 실질이 기호적으로 형식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질료로 남는다. 이것을 영어로는 purport라 부른다. 이렇게 되면 실질은 두 개의 과학, 즉 형식의 과학으로서의 언어학과 질료를 다루는 물리학의 교차로에 있게 됨을 알 수 있다. 이제, 기호 체계들은 보다 더 미세한 단위들로 분석되며, 이 단위들은 연계성에 의해서 기술될 수 있을 정도로 형식적으로 기술될 수 있다. 그런데 일정한 경계 영역의 차원 그 아래로 내려가면 이 단위들은 이른바 기호들을 이루는 원자라고 말할 수 있는 형상소를 형성한다. 바로 이 같은 미세한 원자들을 연구하는 분야가 메타 기호학 *meta-semiology*으로서, 그의 저서 『언어 이론 서술』의 원칙에 따르면, 실제로 실질의 기술과 동일하다(Hjelmslev, 1968~71: 109). 실질의 장을 언어적 형식과 물리적 질료가 만나는 텅 빈 만남의 장소로 보는 시각은 그의 1971년(원저작 연도 1954년) 저작에서 변경되어, 내용의 실질을 다루는 과학은 사회인류학적 수준과 물리학적 수준으로 분할되며, 표현의 실질을 다루는 과학은 이른바 사회-생물학과 물리적 수준으로 분할된다. 엘름슬레우는 이 두 가지 실질의 연계성의 문제를 그것들 자신의 분절과 기호학적 형식 수준의 분절을 소유하는 것으로 상정하면서, 해결하려 했다. 이때 그는 비매개적 수준이란 개념을 끌어들이는데, 그것을 일러 집단적 평가의 수준 *niveau d'appréciations collectives* 또는 비매개적 기호 실질이라 명한다(Hjelmslev, 1971: 63). “하나의 언어 공동체에서 채택된 의미적 사용을 쓸모 있게 특징짓는 데까지 이르는 것은 의미된 사물들의 물리적 기술을 통해서가 아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이 공동체가 채택한 평가, 집단적 평가, 사회적 여론에 의해서이다”(같은 책: 118).

물리적 수준은 사회-생물학적 수준을 선별하고 사회-생물학적 수준은 물리적 수준을 규정한다.

정리해보자. 하나의 형식이 각각의 면에서 두 개 또는 다수의 실질에 의

해서 발현될 수 있다는 사실은, 실질들의 각각이 다수의 수준들을(엘름슬레우는 세 개의 수준을 제안한다)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 중 가장 위에 있는 것은 비매개적·기호학적 실질로 정의된다. 실질과 수준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제수준들은 고려되는 실질과 상관없이, 하나의 보편적 체계를 이룬다. 하지만 실질은 그렇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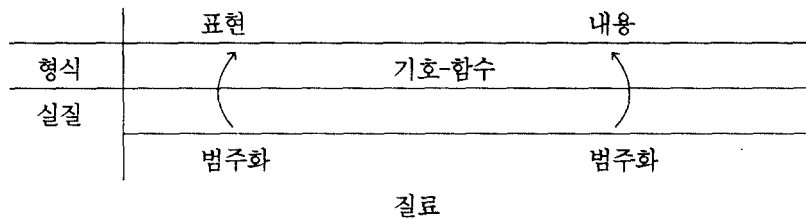
이 같은 수준들은 보편소로 간주되는 반면 그것의 기호적 사용은 이차적인 제약으로 이해된다. 그의 설명은 이렇다: “실질과 수준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제수준들은 고려되는 실질에 대한 참조 없이 보편적 체계를 성립한다(물론 이 같은 보편적 체계에서 그 구체적 실현 속에서 가능한 결점들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질들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같은 책: 65). 제수준들은 보편소로 인지되며, 따라서 세계 속에서 조직화의 서열의 존재론적 실존의 문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이 같은 수준들을 실질에 연계시키는 수단을 강구하는 일이다. 형상소의 개념의 확장은 바로 이 같은 목적에 부합된다. “우리는 형상소 *figures*란 술어의 사용을 확대하여 형식과 실질의 관계의 연구에 대해서도 사용 가능하게 만들 것을 제안해본다. 따라서, 형상소라는 말로 각각 형식과 실질에서 하나의 발현 항목을 구성하는 내재적 단위들을 의미한다”(Hjelmslev, 1968~71: 74). 따라서 형상소는 두 개의 수준에서 실질로부터 가장 간단한 형식의 단위들이 변형되는 분절이다. 이같은 변형들, 즉 표현의 실질에서 표현의 형식으로, 내용의 실질에서 내용의 형식으로의 변형은 내용과 형식의 두 가지 형식 사이의 관계와 유사하다. “많은 본질적인 면에서 발현, 또는 한 수준에서 형식과 실질의 관계는 정확히 기호학적 관계 또는 외연으로서 처신한다”(같은 책: 73). 이 세 가지 상호 성충적 관계들은 자의적인 것으로 파악되며 체계에 대립하는 언어적 사용 *use*에 속한다. 곧 언리학적 기호의 네 가지 성충 사이의 이 같은 세 개의 가능한 전이들 각각은 파월에 의해 수행되며, 파물은 궁극적으로 언어에서 자의적인 모든 것이 된다. “파률은 실제로 실행된 상호 성충적 관계들의 총합”으로 정의된다(같은 책: 76).

『언어 이론 서설』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형식과 물리적 질료 사이의 분명한 구분에 비해, 논문 「언어의 성층화」에서 이루어진 변화는 변형적 형상소들을 작동시키기 위해 세 개의 단계——비매개적 기호적 실질, 사회생물학/사회인류학, 물리학——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언어 형식 그 자체는 전적으로 실질이 결여된 것인 반면, 엘름슬레우가 ‘발현’이란 제목 아래 표현 수준에서 조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범주화의 문제인 것이다. 만약 형식의 대수학이, 구체적 사용을 통해서 자음 /k/로 특수화되는 불변하는 표현을 열어둔다면, 실질의 세 수준에서 가능한 음향학과 더불어 형식의 투자는 어떻게 가능한가? 음성적 실질에서 “비매개적 기호 실질”은 “언어 음성의 청취적 기술”(같은 책: 64)로 파악된다. (즉 사회-생물학, 귀와 인두의 생리학과 물리학(음향학) 등에 의존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비매개적 기호 실질은 지각의 현상학에 속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곧 기호학적 형식과 비매개적 기호 실질 사이에서, 형상소의 자리가 범주화의 자리라는 것을 함의한다. 즉 연속적인 실질을 비연속적인 부분들로 분할하여 이산적인 언어 형식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조작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엘름슬레우 자신이 내리는 변수와 상수의 정의가 형식과 실질로의 성층화와 관련하여 매우 모호하다는 점이다. 언어적 상수가 형식의 성층에 속하는 반면, 구체적 사용과 특수한 발현(구두 언어, 문자, 영상 등등)에서 나타나는 변수들이 실질에 속하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여기서, 범주화는 표현의 실질의 상이한 실재들의 연속적인 범위와 관련해서, 하나의 표현 형식으로 묶어지며 발생한다(예를 들어, 한국어 모음 /e/는 상이하게 발음될 수 있다). 상수와 변수 모두 언어적 형식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범주화의 문제로 명시적으로 나타난다. 엘름슬레우에 있어서, 불변소/변수의 구분이 갖는 역할과 범주화의 역할은 엘름슬레우의 이론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징후를 나타낸다. 변수와 상수가 형식에 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변수들은 체계에 의해서 예측이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체계는 모든 변수들의 현실적 성격을 예측할 수는 없다. 이것은 곧 상수와 변수를 형식과 실질과 더불어 파악하려

는 경향을 발생시킨다. 그렇다면 범주화 활동은 새로운 성찰을 요한다. 기존의 언리학에서 무정형의 실질을 형식이 범주화하는 것을 아무런 이론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지금 내릴 수 있는 잠정적 결론은 범주화 작업은 언어 형식에서 또 동시에 형식과 실질의 경계에서 작동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범주화는 어떻게 작동할까? 이 같은 현상학적 문제에 대해서 엘름슬레우는 어떤 설명도 내놓지 않았다. 우리가 그것을 구성할 수밖에 없다. 먼저 범주화는 실질들(세 가지 수준의 실질들)의 서열적 조직화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 둘째, 언어학과 물리학의 묵시적 관계는 주체와 대상, 곧 형식과 실질의 한계를 설정한다. 따라서 엘름슬레우의 기호-함수, 즉 세미오시스¹⁾는 주체-대상의 이원적 범주가 아니라, 이 양자의 상호 주관적인 과정으로서 이것은 언어 사용을 통해 제어된다. 더구나 주체와 대상의 구분을 그는 비심리적인 것으로 보았다. 형상소 개념은 실질의 형식적 범주화에 대한 비심리적 이론의 문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엘름슬레우 이론의 동형적 구성에 힘입어, 내용과 표현에는 동일한 관계가 설정된다. 기호 함수를 이루기 위해, 두 개의 독립적인 하지만 형식적으로 유사한 범주화의 과정이 두 개의 형식과 두 개의 실질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다. 따라서, 실질에 대한 선행하는 독립적이며 동형적인 범주화가 없이는 기호 함수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엘름슬레우 기호학에서 기호의 개념은 묵시적이지만 하지만, 인간적 주체성과 연대한다는 것이 자명해진다. 범주화의 문제를 형성하는 형상소들은 형식과 실질, 주

체와 대상 사이의 경계에 놓여 있다. 이 같은 우리의 해석은 옐름슬레우의 언어 형식의 자율성과 내재주의에 대한 기존의 확고 부동한 정설에 또 다른 시각을 요구하게 된다.

IV. 질료 개념의 위상

표현면과 내용면의 관계는 형식과 실질의 관계와는 상이한 본질에 속한다. 표현과 내용은 상호 연대적이다. 또한 그것들은 서로를 전제로 한다. 그 관계는 쌍방적이다. 반대로, 형식과 실질의 관계는 일방적이다. 원칙상, 형식은 실질에 선행하여 존재하며, 실질로부터 독립하며 그 정반대의 경우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곧 이론의 가장 일반적인 수준에서, 형식은 결코 임의의 실질 속에서 물질화될 필요가 없음을 말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떤 실질에서도 구현되지 않은 형식을 상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논지는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이 논지는 두 가지를 함의한다. 먼저, 실질에 의거하지 않고도 배타적으로 형식만을 조작할 수 있음을, 아울러 형식의 연구가 반드시 실질의 연구에 선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첫번째 주장은 강력한 테제로서, 많은 반론을 촉발시켰다. 이 같은 형식과 실질의 관계를 보다 원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번째 술어인 질료를 개입시키지 않을 수 없다. 간단히 말하면, 질료는 형식화되지 않은 실질에 불과하다. 랑그의 경우, 질료는 따라서 표현면에서는 소리들의 물리적 연속체라는 구분되지 않는 덩어리에 해당하며, 내용면에서는 언어적 쉼마를 통해 구조화되지 않은 사고의 무정형의 덩어리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관념을 표현하는 방식이 언어마다 차이가 있지만, 언어로 형식화되기 이전의 공통적인 요인이 존재하며, 이것을 질료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 무정형의 사고이다. 사고는 표현되기 위해, 언어라는 주물 속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달리 말하면, 형식은 질료라는 혼돈의 덩어리를 자의적으로 재단하면서, 하나의 실질을 만들어낸다. “질료는 매번 새로운 형식의 실질이 되며, 하나의 형식의 실질이 될 때만 존재가 가능하다”(Hjelmslev, 1968~71: 76). “질료는 그것 자체는 무형태이다. 즉

그것 자체는 하나의 형성에 종속되지 않지만, 임의의 형성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같은 책: 98).

질료는 모든 것에 선행한다. 그것은 일종의 근원적인 마그마이다 (Comeille, 1976: 182). 그것은 무형태이며, 하나의 실질을 통해서 발현되지 않는 한, 인지 불가능하다. 그것의 카오스적인 덩어리는 구조의 원칙에 의해서 가공되지 않았다. 이런 조건에서 물론 질료와 실질은 형식에 종속된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형식 속에서도 구현되지 않는 실질이 무슨 쓸모가 있을 수 있냐고 반문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곧 과정보다는 체계에 우선권을 둔 그의 입장과 일치한다. 그의 원칙은 자연 언어뿐만 아니라, 모든 기호학적 체계 일반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되어야 한다. 하지만, 엘름슬레우는 그의 실제 분석에서 실질을 완전히 추상화시키지 않았다. 그렇다면, 실질은 모든 경우에서 언제나 하나의 변수만의 역할을 맡는가라는 물음이 남는다. 그 답은 부정적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표현면과 내용면은 언제나 연대적이다. 통합체 축에서와 마찬가지로 계열체 축에서도 언제나 표현과 내용 사이에는 상호성이 있다. 그와 반대로, 형식과 실질 사이의 관계는 양측에 따라 변화한다. 통합체적으로 하나의 형식은 상이한 실질들에 의해서 발현될 수 있지만, 계열체 축에서 형식과 실질 사이에는 연대성이 있다. 다시 말해, 과정 속에서만 실질은 항상적 형식에 견주어 하나의 변수로 고려될 수 있다. 형식은 오직 통합체적 관점에서만 실질과 독립한다. 계열체적으로 보면, 형식과 실질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언어 분석에서 실질을 추상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근본적인 대립은 형식과 실질의 구분이 아니라, 형식과 질료의 구분이며, 실질은 또 다른 위상의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결국 “형식과 실질은 상대적 술어들이지, 절대적 술어들은 아니다”(Hjelmslev, 1968~71: 48).

정리해서 말해보면 질료 개념은 소쉬르가 말하는 ‘무정형의 덩어리’를 가리킨다. 그것의 질료적 성격 *caractère hylétique*은 기호학적으로 형성되

지 않은 기저층이다. 질료는 내용이나 표현의 버팀목이다. 기호학적 조직의 관점에서 보면 무형태이지만 형식은 질료를 조절하면서 실질을 만들어 낸다. 형식·실질 그리고 질료 개념들 사이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개념적 설정은 정의들의 서열적 체계이다. 형식의 자율성으로 인해 질료 속에서의 실현과 기호학적으로 형성된 실질 모두는 형식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형식은 순수한 구조로서, 실질은 질료의 구조화로서 나타난다.

3. 퍼스와 범주화의 문제

I. 퍼스의 초기 범주론

퍼스 기호학의 발생부터 그의 관심을 사로잡은 문제는 범주들의 문제였다. 그의 초기 저작인 『신범주론』에서, 청년 퍼스는 세 가지의 기본적인 서술화 또는 의미 형식이 존재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며, 각각 성질·관계·표상으로 명명한다. 이 논문은 기호·의미·범주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생각들을 담고 있으며, 그의 기호 이론의 최초의 소묘가 이루어진 곳이다. 이 논문에서 범주들의 추구는 가장 근본적이며 경험의 통일에 필수불가결한 보편적 개념들의 탐구와 하나가 된다.

감각적 소여에 가장 가까운 보편적 개념은 정신의 순수한 외시적 능력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현재적인 것 일반”(Collected Papers [이하 CP로 약칭], I: 547)에 대한 개념으로서, 있는 바 그대로 존재한다. 퍼스는 이것을 실체라고 부른다. 이어서 존재의 개념이 제시된다. 존재란 주부에 술부를 결속시키는 것으로서, 현실적이거나 잠재적인 그 어떤 것에 속성이나 규정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같은 술부의 첨가로, 사물은 계시가 된다. 존재의 개념은 하나의 명제의 형성 속에서 만들어지며, 하나의 명제는 실체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술어 곁에 이 실체의 성질을 표현하기 위한 또 다른 술어를 갖는다. 아울러 하나의 성질은 오직 유사성이나 대조를 통해서만 인지될 수 있으며, 이것은 곧 모든 것은 다른 것과 유사한 또는 상이한 것

으로서의 주어진 성질과 관련해서만 파악될 수 있다. 이 다른 것을 그 성질의 상관물이라 부른다. 또한 이 같은 상관물에 대한 지시를 관계라 명한다.

이 논문의 본질적인 발견 중의 하나는, 사고의 삼원적 성격, 즉 모든 사고는 하나의 매개를 함의한다는 점이다. 이후에 다듬어질 그의 기호 이론과 범주 이론은 이 같은 매개라는 본질적인 개념의 발전일 뿐이며, 이때 매개는 해석체 개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우리는, 모든 비교는 관계지어진 사물·기반·상관물 이외에도 또한 매개적 표상을 필요로 한다는 것 그리고 관계체 *relate*라는 것이, 매개적 표상 자체가 표상하는 것과 동일한 상관물에 대한 표상이라는 것을 이 매개적 표상이 표상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같은 매개적 표상은 해석체 *interpretant*라고 명명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한 외국인이 말하는 것이 자신이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말하는 해석자의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 그렇다면, 한 상관물에 대한 모든 지시 작용은 해석체에 대한 지시 작용이라는 개념을 실체와 결부시킨다. 그러므로 이것은 존재로부터 실체로 이행하는 계열 중에 있는 후속 개념이다.”

“따라서, 해석체에 대한 지시 작용은 다양한 감각 인상들을 한데 모으는 데서 일어나고, 그러므로 이것은 다른 두 가지의 지시 작용이 그렇듯이 개념을 실체와 결합시키지 않으나 실체 자체의 다양성을 직접적으로 통합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존재로부터 실체로 이행하는 계열 중에 있는 마지막 개념이다”(CP, I: 554). 그 결과 이 논문에서는 모든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범주가 제시된다.

존재 *being*,

성질 *quality* (기반 *ground*에 대한 지시 작용)

관계 *relation* (상관물 *correlate*에 대한 지시 작용)

표상 *representation* (해석체 *interpretant*에 대한 지시 작용)

실체 *substance*

이 범주 목록은 이후에 변경되어, 존재와 실체의 범주가 사라진다. 하지만 이 소논문은 퍼스 사상의 정수를 반영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고·지식·기호의 밀접한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의 해석체에 대한 지시가 실체를 직접적으로 통합한다는 것은, 곧 다양성이 표상 속에서만 비로소 그 통일성을 찾을 수 있음을 말하며, 표상이란 다름아닌 기호들을 통한 사고 외 다름아니라는 사실이다. 달리 말해 모든 사고는 기호들의 사용 속에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퍼스 철학은 전적으로 하나의 기호학이며 그의 프래그머티즘 역시 그의 기호 이론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II. 현상학적 범주론

소쉬르에서 엘름슬레우로 이어져오는 구조기호학의 전통이 인간 중심적 기호학인 반면, 퍼스 기호학은 인간의 자연 언어나 심리와 연대하기보다는 그 토대에 있어서 일반 논리 또는 현상학적 토대를 갖추고 있다. 퍼스가 말하는 현상학 *phaneroscopy*은 정신 속에 나타나는 '파네론'에 대한 연구로서, 우주에 존재하는 현상들의 존재 양식을 첫번째 것, 두번째 것, 세번째 것 등으로 나누고 있다. 첫번째 것은 간단한 성질들로서 순수한 잠재성과 가능성으로 파악된다. 두번째 것은 사실적 사건들 속에서 성질들의 실현을 의미한다. 이것은 곧 가능성을 실현된 사건으로 환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차이화되지 않은 것을 다른 그 어떤 것과의 대질로서 파악함을 의미한다. 모든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거기에 해당하는 저항과 대결의 구도를 이차성으로 보았던 것이다. 퍼스는 『선집』에서 다음과 같은 셰익스피어의 시로 일차성과 이차성을 비유하고 있다.

이차적인 것이라는 관념은 이해하기 쉬운 것이라고 생각됨에 틀림없다. 일차적인 것의 관념은 너무나 연약하여 건드리자마자 망쳐지는 것이지만, 이차적인 것의 관념은 유난히 견고하고 축지 가능한 것이다. 그것은 또한 매우 친숙한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에게 매일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이고 삶

의 주된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에는, 세계는 신선하고 우리는 자유롭게 보인다: 그러나 제약과 상충, 구속 그리고 이차성은 일반적으로, 경험의 교훈을 형성한다. 일차성과 더불어

“스카프를 두른 듯, 돛을 활짝 편 범선은 고향의 만을 떠나고,”

이차성과 더불어

“그 배의 늑재(肋材)는 풍파로 산산조각나고 돛은 갈기갈기 찢어진 채 돌아온다.”²⁾ (CP, I: 358)

삼차성은 사건의 경우에 대한 법칙을 표상하며, 인간의 사고를 나타낸다. 이 밖에도 퍼스는 삼차성의 관념들로서, 일반성 · 무한성 · 연속성 · 유포 · 성장 그리고 지능을 열거하고 있다.

일차성의 범주는 기술하기가 가장 어렵다. 그 이유는 그것은 말 이전의 영역을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차성을 기술하려고 시도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들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퍼스는 어떤 식으로든 인지화될 수 없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차성의 범주는 인지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커뮤니케이션과 공적인 기호들에서는 사용될 수 없는 것 같다. 퍼스의 범주 구조에서 이 같은 역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의 대답은 보다 명백한 이차성의 공적인 속성으로부터 이동하는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일차성의 감각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차성은 모든 이차성과 일차성을 위해 필요한 토대로 발현한다. 일차성은 모든 술부화에 앞서는 것이다. 이차성은 구체적인 예들이 많기 때문에 기술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이차성의 범주는 두 개의 요소를 포함하는 상호 작용을 지시한다. 강제성 · 효과 · 노력 · 독립 · 결과 · 부정 · 관계, 그리고 경우 등등. 일차성은 수준이나 타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 자체로 존재한다.

삼차성은 세 가지 범주들 가운데 가장 복잡한 범주이다. 삼차성은 자아

2) Shakespeare, 「베니스의 상인」, 제2막 2장(역주).

의 생명과 진화하는 우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 삼차성은 다른 것들 가운데서도 일차성과 이차성을 묶어준다. 연속성은 삼차성에서 가장 중심적이다. 행동이라는 이차성의 현실계는 처신 *conduct*이라는 삼차성의 현실계로 향한다. 행동이 일종의 반응이라면, 처신은 자기 제어와 합리성의 성장을 포함한다. 처신의 실질적 핵은 퍼스가 동정심 *sympathy*이라고 부른 것이다. 도덕적 생명의 목적은 세계에서의 동정심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동정심이란 자아들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연속적인 힘이다. 일차성의 영역에 있는 감정은 그것이 삼차성의 영역에서 발현되는 고차원적 동정심에 참여할 때, 도덕적이게 된다. 삼차성은 윤리적 현실계를 가능케 한다. 일차성은 어떤 현실화된 도덕적 성질들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선과 악을 넘어서 있다. 이차성은 너무나 투박한 것이어서 도덕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어떤 방향성도 없다. 오직 삼차성만이 도덕적 힘을 갖는다. 삼차성과 의미의 연계성은 자명하다. 비교와 일반성 없이는 의미는 얻어질 수 없다. 여기서, 퍼스는 삼차성의 개념을 그의 결정적인 개념인 해석체 개념과 연결짓는다.

III. 기호의 구조와 유형론

기호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초적 존재 영역들 사이의 관계로 파악된다.

[잘라 말해, 하나의 기호는] 다른 무엇이 (그것의 해석체) 하나의 대상체를 지시하게 규정하는 모든 것이며, 이 대상체로 그 자신은 동일한 방식으로 (그것의 대상체를) 돌려보낸다. 해석체가 자기 차례가 되어 하나의 기호가 되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ad infinitum* 진행된다." (CP, II: 303)

퍼스의 기호는 따라서 현상들 사이의 관계이다. 이 같은 현상학적 규정은 우리가 이 논문에서 관심의 초점으로 삼은 관계를 규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즉 기호와 주체성, 마음, 심리학의 관계 말이다. 먼저 퍼스의

기호 정의의 요체이자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는 구절을 보자.

하나의 기호, 또는 표상체 *representamen*은 그 누군가에게 어떤 면에서 또는 어떤 명목 아래 다른 무엇을 지시하는 어떤 것이다. 기호는 누군가에게 호소한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의 정신 속에서 동등 가치를 갖는 기호 또는 아마도 더 발전된 기호를 창발시킨다. 그것이 창발하는 이 기호를 나는 첫 번째 기호의 해석체 *interpretant*라고 부른다. 이 기호는 다른 무엇, 즉 그것의 대상체 *object*를 지시한다. 그것은 모든 면에서 그 대상체를 지시하지 않고, 일종의 관념에 준거하여 지시하며, 그것을 나는 때때로 표상체의 토대 *ground*라고 불렀다. '관념'은 여기서 일종의 플라톤적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일상의 대화에서 이 의미는 매우 익숙한 것이다." (*CP*, II: 228)

여기서 분명한 것은 기호는 인간심리학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 요소인 해석체는 액면 그대로 기호의 해석자로 이해될 수 있겠지만, 퍼스의 경우는 특정의 인격적 주체와는 상관이 없다. 여기서 인간적 주체는 단지 해석체의 운반체로서, 첫 번째 기호와 동일한 또는 보다 더 발달된 기호로서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구조기호학과는 달리, 여기서 기호의 정의는 귀환적 *recursive*이다. 다시 말해, 삼분법적 기호의 각각의 단일한 요인은 다시 기호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같은 세미오시스는 역동적이며, 의도된 대상의 기술은 오직 점근적으로 도달할 수 있다. 토대는 기호학적 삼분법의 부분은 아니며, 퍼스에 따르면, 그것은 "하나의 순수한 추상화로서, 하나의 성질 또는 일반적 속성을 성립하며 하나의 토대라고 불려질 수 있다"(*CP*, I: 551). 토대는 첫 번째 것 과 세 번째 것 사이의 연계성에 의해 생산된 기술과 같다. 그것은 기호 속에서 구현된 대상체의 성질을 말한다. 삼차성은 기호를 기호로서 보장하며, 심리적 과정으로서 인지된다. 그런데, 퍼스는 "하나의 기호는 정신적 해석체를 갖는 표상체이다. 가능한 한, 기호들이 아닌 표상체들이 있을 수 있다"(*CP*, II: 274). 그는 해바라기를 예로 들고 있다. 여기서 퍼스의 예가 생물학적이라는 사실이 흥미

롭다. “만약 하나의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하면서, 바로 그 행위를 통해서, 더 이상의 조건 없이, 정확하게 그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태양을 향하게 만드는 하나의 해바라기를 재생할 수 있다면, 또 동일한 재생력을 만들 수 있다면, 그 해바라기는 태양의 표상체가 된다. 하지만 사고는 표상의 유일한 방식은 아니라 해도, 주요 방식이다”(CP, II: 274). 비정신적 표상체에 대한 이 같은 기술은 매우 모호하다. 해바라기는 태양의 운동에 의해서 야기되는, 태양에 대한 지표적 표상체이며, 그 대상체의 도상을 포함한다. 그것은 곧 순환하는 운동이다. 그렇다면, 사고는 일차적인 표상의 방식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제 퍼스 체계에서 범주화의 문제인 기호들의 초유형성 *hypotyposis*의 문제를 거론해보자. 퍼스의 최초의 삼분법은 기호 그 자체와 연관된다. 이것은 세 가지 유형의 기호들을 낳는다. 성질 기호, 단일 기호, 법칙 기호가 그것이며, 퍼스는 다른 곳에서 각각 톤, 토큰, 유형이라고 불렀다. 이 분할은 퍼스에게서 범주화의 문제를 제기한다.

기호들은 세 가지 삼분법에 따라서 나누어질 수 있다: 첫째, 기호 그 자체가 단순한 하나의 성질, 현실적 존재물 또는 일반적 법칙이냐에 따라서 나누어진다: 둘째, 이 기호가 그것의 대상체와 맺는 관계가, 기호가 그 자신 속에 어떤 성격을 갖느냐, 또는 이 대상체와 실존적 관계, 또는 그것의 해석체와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진다: 셋째, 그것의 해석체가 그 기호를 가능성의 기호로 표상하느냐 또는 사실의 기호 또는 이성의 기호로 표상하느냐에 따라 나누어진다. (CP, II: 243)

첫번째 분할에 따르면, 하나의 기호는 성질 기호 *qualisign*, 단일 기호 *sinsign* 또는 법칙 기호 *legisign* 라고 불려질 수 있다. 하나의 성질 기호는 하나의 성질로서 그 성질이 하나의 기호이다. 성질 기호는 그것이 구체화되기 전에는 실재적으로 기호로 작용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같은 구체화는 그것

의 기호로서의 성격과 전혀 관련이 없다. (CP, II: 244)

하나의 단일 기호는(여기서 sin이라는 음절은 ‘단 한 번’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취해졌으며, *single/simple* 등에서의 의미를 갖고, 라틴어의 *semel* 등의 의미를 갖는다) 하나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나 사건으로서, 이 사물과 사건이 하나의 기호이다. 성질 기호는 오직 그것의 성질들을 통해서만 기호가 되며, 그 결과 그것은 하나의 성질 기호나 여러 가지의 성질 기호들을 포함한다. 하지만 이 같은 성질 기호들은 일종의 특별한 종류이며 오직 현실적으로 구체화되면서만 하나의 기호를 형성한다. (CP, II: 245)

하나의 법칙 기호는 하나의 법칙으로서 그 법칙이 하나의 기호이다. 이 법칙은 통상적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설정된다. 모든 계약적 기호는 하나의 법칙 기호이며 [그 정반대는 아니다]. 법칙 기호는 하나의 단일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일반적 유형으로서, 동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를 가져야 한다. 모든 법칙 기호는, 그것의 적용의 경우를 통해 의미하며, 그 적용된 경우를 복사물 *replica*이라고 부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 보통 한 페이지에 15번에서 25번 정도 낱말 ‘the’가 나올 것이다. 그 말은 매번 같은 낱말, 동일한 법칙 기호이다. 그 각각의 경우는 하나의 복사물이다. 복사물은 하나의 단일 기호이다. 그 결과 모든 법칙 기호는 단일 기호들을 요구한다. (CP, II: 246)

위의 일련의 인용문에서 퍼스의 범주화 작업은 그의 이론을 받쳐주는 실재론적 토대와 관련된다. 퍼스는 소쉬르의 기표와 기의의 방식으로, 엘름슬레우의 표현과 내용 사이를 구분하지 않았다. 기호의 삼원적 구조와 그것의 계약성은 세미오시스가 하나의 내용에서 다른 내용으로, 표현에서 내용으로 연계짓는 것에 상관 없이 독립된다. 세미오시스의 무한성 때문에, 이 같은 구분은 상대적이며 특이한 기호에 의해서 규정된다. 모든 것은 동일한 현상학에서 발생한다. 아울러 법칙에 의해서 작동하는 계약적

기호들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모든 상징들은 법칙 기호들이지만 그 역은 참이 아니다. 법칙을 통해서 의미하는 지표와 도상이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법칙들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 것은 퍼스의 개념의 실재성 때문이다. 성질들이 대상에서 대상으로 옮겨가면서 동일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유형의 형성, 법칙 기호의 형성을 위한 가능성의 조건이다. 기호의 존재 그 자체가 퍼스의 이론에서는 반유명론의 논거에 해당한다.

범주화의 문제는 역시 퍼스에게서도 계약적 기호들, 즉 법칙 기호들을 위한 선결적 조건이다. 그렇다면 범주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기호들은 오직 그것이 현실적 사건들이나 몇 개의 성질 기호들을 포함하는 실재들일 때만 기호가 된다. 다시 말해 개별 기호들인 토큰은 일정한 톤이나 성질 기호들을 통해서만 오직 하나의 유형과 법칙 기호의 토큰이 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엘름슬레우와는 사뭇 다른 범주화 논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엘름슬레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범주화는 실질적 성질들을 주체와 세계 사이의 경계선에서 계약적으로 집합시키는 과정이다. 엘름슬레우는 형상소를 퍼스는 성질들을 각자의 이론의 토대로 삼는다. 단일 기호들은 사건들이며, 법칙 기호들은 단일 기호들을 그것들의 톤에 따라 유형들로 질서화한다. 여기서 범주화의 자리는——즉 실질을 형식화하는 것과, 개별 기호들을 법칙 기호들로 질서화하는 것——두 이론에서 유사하다. 하지만 이 둘 모두 범주화에 대한 존재론적·인식론적 문제를 심화시킬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했다.

엘름슬레우는 유명론의 입장에서 퍼스는 실재론의 입장에서 각각 범주화의 문제를 자명한 것으로 오인하고 그 문제의 복잡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엘름슬레우	퍼스
형식	타입
실질	토큰
질료	톤

3. 결 론

이제 엘름슬레우와 퍼스에 있어서의 범주화의 문제로 돌아와보자. 우리는 이제 기호학의 구성을 범주적 지각과 더불어 조준할 수 있다. 범주적 지각은 기호를 형성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서, 전적으로 자의적이지도 않고 전적으로 동기 부여가 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엘름슬레우의 경우는 유명론으로, 퍼스는 실재론의 관점에서 기호의 형성을 파악했다. 범주화는 언제나 자의성의 요소를 도입한다. 그것은 기호학적으로 효율적이다. 하나의 타입 아래 여러 개의 토큰들을 포섭할 수 있는 범주의 능력은 특정 자질들을 강조하고 나머지를 무시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이것은 곧, 일대일의 대응성보다는 도상적 표상에 내재하는 스타일화에 해당된다. 어떤 종류의 유사성도 자질들을 닮은 것으로 보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체의 결단을 요구한다. 아무리 완벽한 도상도 구체적인 소통적 사용에서는 계약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 누구보다도 퍼스 자신이 이 점을 선명하게 의식하고 있었다.

“그림과 같은 어떤 물질적 이미지도 그것의 표상 방식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계약적이다”(CP, II: 276). 따라서 범주적 지각은 도상과 상징의 단절이 아닌 양자 사이의 연속성을 만들어낸다. 이 같은 연속성을 받아들인다면, 결국 상징은 진화의 과정에서 근원적으로 도상적 기호였던 것으로부터 발전되어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모든 도상이 내포하는 내재적 계약성은, 도상이 그것의 도상성을 완벽하게 망각해서 상징이 되기 전까지의 성장 과정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같은 논리에서, 상징은 도상성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는다. 기호학적 소통 가능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안정성을 요구하며, 이것은 곧 개별적 사용들에서 상대적 동일성을 요구한다. 바로 이 같은 상대적 동일성은 도상성이다.

인지언어학의 테제에 따르면 범주들은 인지적 경제의 원칙에 따라 형성되며, 환경은 하나의 범주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속성들의 다발이,

또는 정보의 극대화를 줄 수 있느냐를 지적하면서 범주들의 형성에 대한 제약을 가한다. 이 같은 입장의 파급 결과는, 자의성의 테제에 대한 정면 부정이다. 즉 제언어는 윌프가 주장하듯, 자의적인 방식으로 세계를 재단하지 않으며, 범주들의 성립에 가해지는 객관적 현상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로쉬는 그의 이론적 연구의 삼단계에서, 그 같은 객관주의적 가설을 약화시켜 세계에 대한 객관적 구조화를 지각된 세계 구조 *perceived world structure*로 대체한다(Rosch, 1978: 29). 속성들의 총합은 주체에 의해서 속성들의 다발로 지각되며, 현실 속에 내재하는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주체가 관여한 지각된 세계를 말한다. 결국, 이것은 속성들의 다발은 현실 속에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완전히 자의적으로 성립된 총합도 아니다. 그 같은 속성들과 범주들의 형성은 그것들의 환경과의 상호 작용에 달려 있는 것이다. 레이코프가 분명히 밝혀놓았듯이, 속성은 '작용적 속성'을 두고 하는 말이다(Lakoff, 1987: 51).

참고 문헌

- Benveniste, E.,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1, 2, Paris: Gallimard, 1966, 1974.
- Cassirer, E., "Le langage et la construction du monde des objets," *Journal psychologique*, 1933.
- Cassirer, E., *La philosophie des formes symboliques, 1. le langage*, Paris: Minuit, 1972.
- Cauzinille-Marmèche, E. ali., "Catégories et processus de catégorisation," *Modèles généraux et locaux du développement cognitif*, G. Netchine (éd.), Paris: PUF, 1988.
- Coquet, J. C., "Réalité et principe d'immanence," *Langages*, n° 103, 23~35, 1991.

- Coquet, J. C., "Note sur Benveniste et la phénoménologie," *LINX*, N. 26, 41~48, 1992.
- , *La quête du sens*, Paris: PUF, 1997.
- Cornille, J. P., *La linguistique structurale*, Paris: Larousse, 1976.
- Eco, U., *Sémiotique et philosophie du langage*, Paris: PUF, 1988.
- Fontanille, J., "La base perceptive de la sémiotique," *Degrés*, N. 81, 1995.
- Greimas, A. J., *Du sens*, Paris: Seuil, 1966.
- Greimas, A. J. et Fontanille, J., *Sémiotique des passions*, Paris: Seuil, 1991.
- Hjelmslev, L., *Principes de grammaire générale*, Copenhague: Bogtrykkeri, 1928.
- Hjelmslev, L., *Le langage*, Paris: Editions de Minuit (Edition originale: 1935), 1966.
- Hjelmslev, L., *Prolégomènes à une théorie du langage*, Paris: Editions de Minuit (Edition originale, 1943), 1968~71.
- Hjelmslev, L., *Essais linguistiques*,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71.
- Hjelmslev, L., *Nouveaux essais*, Paris: PUF, 1985.
- Kleiber, G., *La sémantique du prototype: catégories et sens lexical*,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90.
- Lakoff, G.,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 Martinet, A., *La linguistique synchronique*, Paris: PUF, 1965.
- Mounin, G., *La linguistique du XX^e siècl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72.
- Parret, H., "Préhistoire, structure et actualité de théorie hjelmslevienne des cars," *Nouveaux Actes Sémiotiques*, N. 38, 1-27, 1995.
- Peirce, C. S., *Collected Papers* I-VIII, Mass., 1932~58.
- Petitot, J., *Morphogénèse du sens*,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85.

Rasmussen, M.(éd.), *Louis Hjelmslev et la sémiotique contemporaine*,
Copenhague: Cercle Linguistique de Copenhague, 1993.

Rastier, F., *Sémantique et recherches cognitives*,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91.

Rosch, E. & Lloyd, B.(eds.), *Cognition and Categorization*, Hillsdale:
Erlbaum, 1978.

Sierstema, B., *A Study of Glossematics. Critical Survey of Its fundamental
Concepts*, The Hague: Martinus Nijhoff, 1965.

Taylor, J. R., *Linguistic Categorization: Prototypes in Linguistic Theory*,
Oxford: Clarendon Press, 1989/1995.

Thom, R., *Esquisse d'une sémiophysique*, Paris: Inter Editions, 1991.

Whorf, B. L., *Language, Thought and Reality*, Cambridge, Mass.: M. I. T.
Press, 1956.

Zilberberg, C., *Poétique du sens*, Paris: PUF, 1989.